

충남의 내포문화권과 금강문화권

임선빈(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전문위원)

충청도 내부의 전통 문화권은 크게 서해안의 내포지역, 금강 유역, 남한강 유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을 깎아내고 터널을 뚫어 도로를 내는 오늘날의 육로 교통 시대와는 달리 전통시대에는 흔히 물길은 서로를 이어주고 높은 산은 소통을 가로막았다. 따라서 충청도 안에서도 남한강 유역인 충주지역과 금강 유역인 청주지역은 한남금북정맥으로 격리되고, 금강유역과 내포지역은 금북정맥으로 나뉘며, 금남정맥은 금강이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면서 동서 지역이 모두 금강 유역권에 포함되었다.

조선시대에 주로 충청우도에 해당했던 충청남도는 공주목과 홍주목이 이 지역 행정의 중심지였다. 공주목과 홍주목은 고려시대부터 계수관 고을이었는데, 이와 같은 계수관 고을은 각기 지역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충남지역은 크게 계수관 고을이었던 홍주를 중심으로 한 ‘내포문화권[가야산문화권]’과 공주를 중심으로 한 ‘금강문화권[계룡산문화권]’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다.

내포(內浦)의 사전적 의미는 ‘바다나 호수가 육지로 후미진 부분’을 뜻하며, 순수한 우리말로 ‘안-개’라고 한다. ‘안개’라는 지명은 오늘날에도 서해안 해안가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명사 내포가 고려시대부터 이미 충청도[호서]의 서북부지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역사자료를 통해 확인해 보면 내포라는 지명은 고려 공민왕대의 기록에 처음 등장하며, 전라도 조운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충청도 서해안 지역을 지칭하고 있다.

조선후기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금북정맥의 중심 산인 가야산 앞뒤에 있는 열 고을을 내포라고 지칭했으며, 이 중에서도 내포 중의 내포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삼교천 유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이 내포지역의 중심고을인 홍주목이 관할하던 영역인 서천에서 평택까지의 20여 고을[홍주진관(洪州鎭管) 소관]을 일컫기도 했다. 아무튼 내포지역은 충청도 지역 중 서해안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금강유역을 내포지방이라 부르고, 대전·논산·강경을 연하는 내포평야(內浦平野)라고 잘못 설명하고, 금강중류를 내포평야, 하류를 전북평야(호남평야)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금강유역을 내포, 내포평야라고 일컫는 왜곡된 지명의 사용이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이어져, 우리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필자도 1970년대의 초등학교·중학교 시절 지리 수업에서 금강 중류에 있는 논산·강경의 들판을 내포평야라고 배웠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아산·온양·신창·예산·대흥·면천·당진·덕산·해미·홍주 등지를 상부내포(上部內浦)라고 하고, 태안·서산·결성·보령·청양·남포·비인·서천·한산·홍산 등지를 하부내포(下部內浦)라고 부르며, 심지어는 금강가에 위치한 공주까지도 내포교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포의 개념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 아니다. 천주교에서 이렇게 내포의 개념이 잘못 사용된 것은 내포지방에 먼저 전래된 천주교가 점차 공주를 비롯한 내륙으로 확산된 상황의 반영으로 추측된다.

내포 지방 비산비야(非山非野)의 넓은 들판 가운데 우뚝 솟은 가야산은 우리나라의 전통지리인식에 의하면, 백두대간을 근원으로 하여 갈라져 나온 금북정맥의 정기가 모여 있는 곳이다. 내포지역은 동으로는 죽산의 칠현산에서 남쪽으로 치달리는 금북정맥의 본줄기에 가로막혀 충청도의 내륙지방과 격리되어 있었고, 남으로는 오서산에서 보령의 진당산으로 갈라지는 금북정맥의 작은 갈래에 의해 구분된다. 내포는 지형이 대체로 완만하고 해안의 굴곡이 심한데다가, 바다의 조석간만의 차가 커서 곳곳에 안개[內浦]가 형성되는데, 그 가운데 아산만으로 흘러드는 삼교천 주위가 가장 크게 발달하였다. 내포의 교통로는 곳곳에 발달한 포구를 이용한 수로가 중심이었다. 조선시대 역로의 주요간선로에서 비껴 있었던 내포지역의 육로는, 서울에서 충청수영에 이르는 도로망과 함께, 서울로 가는 지름길인 대진나루, 충청도의 행정중심지였던 공주와 통하는 차령(차동)고개가 중요하였다.

내포의 지리적 조건은 내포의 독특한 역사적 특징을 지니게 하였다.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개방되어 있을 때에는 외국문물 수용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니, 고대 불교문화의 전래, 안흥과 당진항의 발달 등이 그것이다. 반면에 대외적으로 바닷길이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잦은 외국 세력의 침투가 이루어

졌으니, 여말선초 왜구의 출몰과 조선후기 이양선의 출몰 등이 그것이다. 내포지역에서는 고려말에 성리학의 수용에 앞장섰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조선시대 성리학적 분위기가 경직되지 않았으며, 조선후기에는 실학자들을 많이 배출하기도 하였다. 내포사람들은 일찍부터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다. 생선과 소금을 만들어 서울과 내륙을 드나들며 팔았으므로 이 지역에 상업이 발달하였고, 구릉지 개발과 해만간척을 통해 확보한 농경지는 사족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충청남도의 내륙에는 금강이 관통하여 흐른다. 금강은 총 유로 연장 401.4 km, 총 유역 면적 9885.8km²로서, 한강과 낙동강에 이어 남한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다. 금강은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발원하여 북서 방향으로 초강 송천 보청천 등의 지류를 받아들이며 흐르다가, 신탄진에서 갑천과 합류하고 다시 청원군 부강에서 미호천과 합류한다. 이곳에서 금강은 물줄기의 방향을 서남 방으로 틀어 정안천 은산천 논산천 등을 모아 군산만에서 서해로 유입된다. 충청남도에서는 금산군, 공주시, 청양군,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등이 금강이 흐르는 유역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금강(錦江)이 전통시대에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었다. 중국의 『당서(唐書)』에는 금강이 웅진강(熊津江)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백제에서도 웅진(熊津)·사비(泗沘)·백강(白江) 등으로 불리었다. 통일신라시대에도 웅천하(熊川河), 사비하(泗沘河) 등의 명칭이 보이며,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 왕건의 훈요십조에서도 오늘날의 금강은 금강이 아닌 ‘공주강’이라는 표현[車嶺以南公州江外]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에 고려시대에 금강은 금성산(錦城山)이 있는 전라도 나주에 있었다. 전라도의 금강(錦江)은 나주의 동남쪽을 경유하여 흘러 회진현 남서쪽을 지나 바다로 들어갔다. 따라서 조선초기까지도 오늘날의 목포가 금강진(錦江津)이라고 불리웠다. 이 전라도의 금강은 지금의 영산강이다.

오늘날의 충청도 금강이 ‘금강(錦江)’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에 와서의 일이다. 웅진(熊津), 곰나루와 관련하여 ‘곰강’이라고 불리우던 명칭이 아름다운 한자어로 표기되면서 ‘금강(錦江)’이라고 일컫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그것도 처음에는 수역(水域)의 일정 지역을 지칭하던 명칭[부분칭(部分稱)]이 후에 강 전체를 지칭하는 것[전칭(全稱)]으로 확대되어 사

용되었다. 사실 조선초기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 전체를 지칭할 때 ‘錦江(금강)’이 아닌 ‘熊津(웅진)’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충남의 내륙에 있는 계룡산은 금남정맥의 중심 산이다. 금남정맥(錦南正脈)은 전주 동쪽 마이산에서 북으로 치달아 대둔산, 계룡산을 거친 후 서쪽으로 망월산을 지나 부여의 부소산과 조룡대에 닿는다. 육로 교통이 발달한 오늘날과는 달리 수로 교통이 중요했던 전통시대에는, 산은 길을 막고 물은 길을 이어 주었다. 전통시대에 이 지역을 이어주는 연결 통로는 계룡산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을 ‘금강문화권’으로 부를 수 있다. 바로 이 금강변의 공주와 부여에서는 일찍이 찬란한 백제문화가 꽃피었다. 내포문화권이 고대 중국의 선진문물이 들어오는 관문이었다고 한다면, 금강문화권은 이를 꽃피운 지역이었다. 또한 어진이는 산을 좋아한다고 했듯이[仁者樂山], 계룡산 자락과 가야산 자락에서는 조선시대 기호학맥의 기라성 같은 중심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